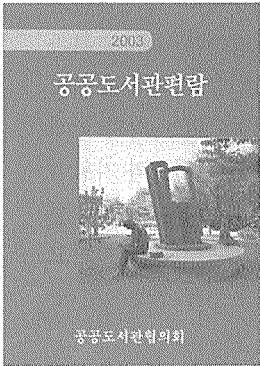


공공도서관협의회

박 병 주_리사



공공도서관협의회는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도서관인들의 자질과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전체 도서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공공도서관협의회는 전국 389개의 공공도서관이 가입하였으며, 임원으로는 회장, 부회장, 감사와 16개 시·도별 지부도서관 및 지부도서관 외에 시·도별 1개관씩 운영위원 도서관이 있다.


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서관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국의 사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정기총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시·도별 지부도서관 및 운영위원 도서관이 매년 2차례 모여 공공도서관 현안사항 등에 대해 토론했고 협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는 세계화·전문화에 따른 사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IFLA 총회 참가자에 대해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 지부 도서관 협력 회의 개최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개발되고 시행되게 하는 등 현실적인 협력이 추진되도록 도서관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강화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16개 시·도별로 도서관 직원 1명씩을 선발하여 특별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특별연구위원회에서는 학계의 이론적·학문적 연구와는 달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문제점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연구 결과는 공공도서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이 외에 도서관 현황과 공공도서관 및 사서직 명단 등을 수록한 공공도서관 편람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정년 및 명예 퇴직자에 대해 공로패를 제작하여 수여하는 등 공공도서관협의회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도서관협의회는 공공도서관의 구심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업무협조를 통해 도서관 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공공도서관협의회 사무국은 물론 운영위원회와 지역대표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도서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다. 

[문의 : 전화 : 02-590-0542, E-mail : p433bj@nl.go.kr, 주소 : (137-702)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 국립중앙도서관 자원협력과]

도서관문화와 NGO를 찾아서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는 이번 호부터 도서관계 주요 단체(NGO)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였다. 도서관 발전의 함께 할 단체들에 대한 도서관인들의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주

도서관운동연구회 :

한 사람의 열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김기문_외장

1995년에 결성된 도서관운동연구회는 사서와 시민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순수 민간단체이다. 도서관운동연구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평등한 정보접근권의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도서관이 사회의 공적 재화임을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서관운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서관운동연구회가 처음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도서관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꾸준히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으며 회원수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는 도서관운동연구회의 계간지 '시민과 도서관'은 올 봄이면 통권 34호를 맞는다.

그동안 다양한 특집기사로 현장 중심적 대안매체를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도서관계 현안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년에 2차례씩 열리는 '도서관운동연구회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논쟁의 주변부에만 맴돌았던 사서와 시민을 토론의 주체로 내세우고 주제 또한 그들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도서관계 현안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담론형성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런 일련의 활동가운데 도서관운동연구회의 대표적 활동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도서관정책 감시 활동이라고 하겠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1997년과 2002년에는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도서관정책 질의서를 발송하여 그 답변을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2002년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국민의 정부'의 도서관정책을 집권 전·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도서관정책 제안서 발송, 국정감사 시민모니터단 활동, 사서자격증 개정을 위한 토론회 및 정책제안, 서울시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참여,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제안 등의 활동을 하였다.

도서관정책이 일관되게 입안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감시하고 지켜보는 개인 혹은 단체가 있어야 한다. 도서관운동연구회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서관정책을 감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도서관운동연구회의 활동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도서관운동연구회의 으뜸구호도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이다. 도서관정책 감시활동이나 토론회 또는 출판활동은 도서관운동연구회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이며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도서관운동연구회가 중시하는 것은 절차의 민주주의이며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주인의식이다. 그래서 2004년은 이를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였다. 이 외에도 4월에 있을 총선과 관련하여 도서관정책 제안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실시예정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공공도서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 및 정책 제안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문의: 전화: 02-878-2172, 주소: (151-817)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96-285 101호,

E-mail: webmaster@libmove.or.kr]



<http://www.libmove.or.kr>